



오늘의 말씀 - 월 (출 9:27-35)

2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8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렛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렛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30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31 그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3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렛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4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렛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
가 꼭 같더라

35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
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본문 이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
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렛소
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여호와
를 향하여 펴리니 우렛소리와 우박이 그치리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렛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적용

우렛소리와 우박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고, 밭의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들이 꺾이는 것을 보고, 비로소 바로가 자기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렛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여 우렛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바로는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와 우박과 우렛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꼭 같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약속을 다시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

습니다.

회개도 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당할 만큼 당했고, 알 만큼 알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살만해지자 또 변덕입니다. 그에게는 우렛소리와 우박이 축복이요, 살만 한게 저주였습니다. 회개도 지식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 내 속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기도

내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하옵소서.

소망 없는 내 모습에 절망하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내일 말씀: 출 10:1-11)